

신채호 소설의 근대국민국가 기획에 관한 연구

-〈류화전(柳花傳)〉과 〈익모초(益母草)〉를 중심으로-

김현주*

|| 차례 ||

1. 머리말
2. 탈성화된 성모상(聖母像)의 구현 <류화전>
3. 효자(孝子)의 재발견 <익모초>
4. 맺음말

【국문초록】

지금까지 신채호의 역사전기소설을 대상으로 근대국민국가 기획 양상을 다룬 연구가 여러 각도에서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류화전(柳花傳)〉과 <익모초(益母草)〉로 확대하여 신채호 소설의 다양한 근대기획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류화전>에서는 성모(聖母)적인 어머니상을 구현하고 있다. 아버지와 지아비에게 버림받았던 류화는 민족 정체성을 대표하는 남성 영웅, 동명왕의 보조자로서 고난을 이겨내는 강인한 어머니로 갱생(更生)된다. 여기에서 어머니로서의 류화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것이다. 특히 ‘군자’와 같은 류화의 모습은 탈성화된 어머니상을 현현한다. 그녀의 학문적 능력은 아들을 당대가 요구하는 도덕과 이데올로기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영웅을 길러내는 데 기여할 것임이 예고되며, 이는 어머니로서의 여성 의무를 강화하는 작업이 되고 있었다.

<익모초>는 신채호의 최초 소설 작품이나 지금까지 연구된 바가 없었다. 서사에서는 유교적 봉건사회가 요구하던 ‘효자’가 애국심이 충만한 자로 새롭게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김장하 집안 사람들은 대대로 효성이 지극하며, ‘가정지학(家庭之學)’이 있다. 최완길이라는 인물은 김장하의 가르침을 통해 ‘효’를 깨닫는데, 이러한 ‘효’는 곧 애국심으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로 전이된다. 국가를 지키는 것은 곧 부모에게 효도하는 바와 동일시됨으로써 국가에 대한 충성은 당위성을 부여받게 된다. 진화의 당위성 안에 개인은 가족 안에, 가족은 국가 단위에 포섭됨으로써 애국적인 국민 창출이 기대되는 것이다. '가정지학'을 얘기하는 것은 '효'라는 윤리규범을 문명의 상징인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전이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곧 '국가지학(國家之學)'을 강화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근대국민국가, 어머니, 성모상, 탈성화, 효자의 재탄생, 가정지학, 국가지학

1. 머리말

신채호는 역사전기소설에서 을지문덕, 이순신, 최영과 같은 구국의 영웅들을 형상화한 바 있다. 서사에서 펼쳐지는 영웅들의 일대 활약과 신체 표상은 문명, 진보에의 열망을 환기시키는 강인한 국민적 이미지를 표상하는 것이었다.¹⁾ 이는 곧 봉건질서의 모순들과 중화주의를 극복하고, 응집력 있는 근대주체의 탄생을 기대하는 작업이었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영웅들로 표상되는 근대국민국가 기획 양상에 주목해 왔다.²⁾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류화전(柳花傳)>

1) 신채호는 생존경쟁시대에서는 지덕체 중에서 체육이 가장 긴급히 요구되는 덕목이라 강조한다. 그는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자강의 힘을 길러, 경쟁시대에 합류하는 것이 문명사회로 나가는 시작이라 보았다. <덕육과 지육과 테육중에 테육이 최긴함>, 『전집 6권』, 245면.

* 본고는 가장 최근에 발간된 전집 (단체 신채호전집 편찬위원회, 『단체신채호전집』 1~10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08.)을 기본 텍스트로 삼는다. 차후, 『전집』이란 명칭으로 통일하고 권수만 밝힌다.

2)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제국주의 팽창으로 봉건 질서가 와해되고 국가의 존립이 위태한 상황이었다. 당시 사회진화론을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떠오른 세계질서는 바로 '근대국민국가' 체제였다. 국민국가는 문명의 상징이자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대항의 이념이었으며, 중화주의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역사적 정체성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초석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새 질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봉건 백성들을 민족, 국민이라는 함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였으며, 주지하다시피 이는

과 <익모초(益母草)>로 확장하여 봉건 시대 어머니, 효자가 근대 기획의장에서 어떻게 재해석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³⁾

<류화전>⁴⁾은 망명 이후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나 새로운 근대적 의미의 여성 영웅화 작업에 기여하는 바 크다. 망명 이후의 여타 작품들이 인물에 대한 작가의 중층적인 시각이 드러나고 있는 반면에, <류화전>에서는 인물의 대립적 구조와 선악의 대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 역사전기소설에서 보여주는 인물 형상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 또한 역사전기소설처럼 전(傳)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이 밖에도 망명 이후의 작품들에서는 주로 실패하는 영웅들이 등장하는 데 반해 류화는 시련을 이기고 새로운 어머니 상으로 거듭나고 있는 점에서 망명 이후의 작품들과 차별화된다. 따라서 근대 기획이 실행되던 당시의 논설들을 참조하여 논의해 볼 것이다.⁵⁾

역사를 창출하고 봉건적인 '충, 효' 이념을 재정립함으로 가능하였다.

- 3) 신체호 문학의 근대성과 관련한 주요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김현주, 『신체호의 역사 이념과 서사적 재현 양식에 대한 연구』, 상허학회, 『상허학보』 14집, 깊은 샘, 2005, 2.
박중렬, 『한국 근대전환기소설의 근대성과 계몽담론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0.
양진오, 『강요된 근대와 거대서사의 기원』, 『실천문학』 54 여름호, 1999.
오선민, 『전쟁서사와 국민국가 프로젝트』, 『국민국가의 정치적 상상력』, 소명출판, 2003.
차승기, 『근대 계몽기 민족주의의 성격에 관한 고찰 -저항과 지배의 변증법-』, 한국문학연구회, 『현역중진작가연구IV』, 국학자료원, 1999.
채진홍, 『신체호 소설에 나타난 근대인관』, 한국언어문학회, 『한국언어문학』 제55집, 2005, 10.
- 4)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류화전>의 양식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이영신은 고전소설의 전형적 구조를 보여준다고 하였으며 (이영신, 『단체 신체호의 문학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9.) 최수정은 신화와 소설의 긴장에서 미완된 작품으로 근대적인 서사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최수정, 『신체호 서사문학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3.
- 5) <류화전>은 망명 이후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신문지면 등에 발표되지는 못하였지만, 대중성과 주제의식 등을 고려해 볼 때 발표를 염두에 두고 쓴 것으로 보인다.

<익모초>(《가뎡잡지》, 1908.)는 역사전기소설에 앞서 발표한 신채호의 최초 소설 작품이나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이는 작품이 3월, 7월분만 발굴돼 있어 작품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발표되었던 소설과는 소설 형상화 방법과 주제 등에서 이질적이라 보았기 때문에 짐작된다. 그러나 <익모초>는 한 가정을 배경으로, 근대 기획의 출발을 보여주는 주요한 작품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2. 탈성화된 성모상(聖母像)의 구현 <류화전>

<류화전>은 고구려 시조 동명왕의 어머니, 류화를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신채호 소설 중에 유일하게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이다. 당대는 내부적으로 영토를 보호하고 국난을 타개할 방책이 요구되던 시기로, 특출한 일 개인의 영웅을 기대하기보다 ‘多數의 小英雄’⁶⁾적인 국민 창출이 기대되던 때이다. 따라서 신채호는 건국 영웅인 동명왕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그 어머니를 그림으로써 근대 여성상을 구현하고자 한다.

특이한 점은 신화에서 류화가 물의 신(神)인 하백의 딸이었던 것과 달

다. 신채호는 ‘小説은 國民의 羅唎盤’ (『近日 小說家의 趨勢를 觀하건디』, 『전집 6권』, 523~524면.)이라고 보면서 계몽주의 문학론을 제창하였다. 문학의 효용론을 강조하는 이러한 태도는 망명 이후까지 지속된다.

6) 신채호는 번역작 <伊太利建國三傑傳>에서 이태리의 세 영웅들은 그저 ‘수많은 무명의 영웅’들을 대표할 따름이라고 보았다. 역사전기소설에서 형상화되었던 구국의 영웅들 역시, 단순한 승배의 대상이기보다 근대 국민 창출을 도모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기호였다. ‘伊太利之建國이 又 豈但 三傑之功哉아. 瑪志尼黨中에 無名之瑪志尼가 當不知 幾千 幾百人이며 加里波의 麾下에 無名之加里波의가 當不知 幾千幾百人이며 加里波幕裡에 無名之加富爾가 當不知 幾千 幾百人이라. 若 三傑者는 不過 伊太利 全國民中에 其 代表者 三人而已니’ <伊太利建國三傑傳>, 『전집 4권』, 616면.

리, <류화전>에서는 장대길(張大吉)과 조씨(趙氏) 사이에서 태어난 장류화(張柳花)라는 점이다.⁷⁾ 류화는 송화강 부근의 명망대가(名望大家)의 자식이기는 하나 서민의 신분일 따름이다. 해모수 역시 북부여 왕이긴 하나 천제(天帝)의 아들이라는 언급이 없다. 또한 주몽 역시 앞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한, 사내아이로 태어난다. 말하자면 주몽은 ‘사람의 아들’인 것이다. 신체호는 신들로부터 신성한 혈통을 이어받은 신적인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해모수, 류화, 주몽을 그리고 있다. 이는 당대가 더 이상 신화의 시대나 신격화된 봉건 왕의 시대가 아니라 인간의 시대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류화는 해모수와 부모에게서 두 번의 버림을 받는다. 해모수와 부모는 각각 법과 봉건적 사고에 얽매어 천륜까지 저버리는 인물들이다. 첫 번째, 해모수는 일시적인 호흥(豪興)으로 류화와 야연(野緣)을 맺으나 그녀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왕으로 그려진다. 그는 류화를 후궁으로 정하리라 하였으나 ‘국법이 왕실에서는 호족 귀족(豪族 貴族)이 아니면 결혼하지 못 하고, 서민과 결혼한다면 국조 대법을 범한 줄로 아는 까닭으로’⁸⁾ 류화를 버리고 돌보지 않는다. 그리고 장대길 역시 딸이 왕과 사통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류화를 우발수 중에 던진다. 그는 딸이 ‘음부 천녀의 악명을 쓰고 구차히 살려 두는 것이 차라리 없이 하느니만 같지 못 하고 또한 가풍(家風)을 손상치 아니 하리라’⁹⁾며 류화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딸의 목숨보다 가풍을 아끼는 장대길의 모습은 유교적 인습을 따르는 봉건적인 아버지 모습 그대로이다.

류화가 이렇게 지아비와 부모에게서 버림받음으로써 주몽은 태생적으

7) ‘소녀는 성은 장이요 명은 류화라 이 물 상류 우안 장가장(張家莊)에 사는 장 대길이 저의 부친이올시다.’ <류화전>, 『전집 7권』, 93면.

8) 위의 책, 92면.

9) 위의 책, 92면.

로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되었다. 류화 모자(母子)는 둘 다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인 것이다. 이러한 부권 상실의 이미지는 곧 ‘국가 상실’의 이미지로 재현된다. 류화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영웅을 길러냄으로써 끝내 그것을 극복해가는 모습은 국가를 상실한 이들의 굴곡진 운명과 역사적 소명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땅인 송화강 상류에서 물결 따라 중류로 떠내려감과 북부여에서 동부여로의 떠남의 모티프는 곧 추락한 왕, 지아버와 아버지 나라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곧 필연적으로 새로운 땅에서 탄생할 인간 주몽의 시대를 암시하는 것이다.

우발수에 몸을 던졌던 류화는 백악도인(白岳道人)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재생의 도’를 얻는다. 그리고 동부여왕의 후궁이 된 후, 왕의 의심과 후궁들의 질투와 방해를 견뎌내고 고구려의 시조, 주몽을 낳는다.

류화는 ‘원래 범골(凡骨)이 아니라 장래 대귀할 증조를 뵈었으며 천성(天性)이 혜민(慧敏)하고 부덕(婦德)이 넓어 린리(隣里)에서 칭찬이 자자한 인물이며, ‘현숙’하고 ‘숙덕과 자색’¹⁰⁾을 겸비한 자이다. 이러한 류화가 세상에 온 것은 주몽을 세상에 내기 위해서이다. 백악도인은 류화에게 이러한 사명을 일러주며 그녀가 자각의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소저는 본래 전세 선아(前世 仙娥)로 동부여국에서 양연을 맺고 장래 일국 제왕의 태상후(太上后)가 될 것이요, 소저의 배 가운데 창엽할 제왕을 배였으니 로부의 말을 괴이 알지 말고 비록 앞으로 천만 횡액이 있더라도 별로 랑패됨이 없으리니 귀공자를 잘 양육하여 건국 대업을 이루고 최귀 행복을 안형(安亨)하라.” (중략) 렬국의 통일과 성주의 건국을 바란 지 오래더니 상제 하민을 음측히 여기서 동방에 대성인 추모를 내이사 고구려 대국을 건설하여 만민을 정화케 하심이니 류화 부인이 이 세상에 음이 어찌 만민의 행운이 아니리오¹¹⁾

10) 위의 책, 92면, 97면, 99면.

11) 위의 책, 98면, 111면.

구국의 영웅들이 전쟁을 통해 강인한 국민상으로 거듭나는데 반해 류화는 ‘전세 선아(前世 仙娥)’로서 이미 고형화된 여성상으로 등장한다. 또한 전쟁영웅들이 지덕체를 겸비한 강인한 남성으로 제시되었던 반면, 류화는 지혜롭고 부덕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다. 그녀는 지아비를 잃고 오직 현숙한 어머니로 살아갈 운명을 타고난 사람으로, 버림을 받았던 그녀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는 ‘귀공자를 잘 양육하여 건국 대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이다. ‘규중 약질’이던 류화는 민족 정체성을 대표하는 남성 영웅 동명왕의 보조자로서, 고난을 이겨내고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영웅을 출산, 양육하는 강인한 어머니로서만 그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국난의 대과제가 구국의 영웅으로 표상된 남성 영웅에게 부과되었다면 류화는 그러한 영웅을 길러내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다.

또한 류화는 ‘학예(學藝)를 익혀 고금사를 섭렵함이 많으니 천생려질(天生麗質)이라 녀중 군자¹²⁾와 같은 인물이다. ‘군자’와 같은 류화의 모습은 탈성화된 여성상을 현현한다. 그녀의 학문적 능력은 아들을 잘 양육하여 당대가 요구하는 도덕과 이데올로기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영웅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것임이 예고된다. 즉 그녀의 지식은 여성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덕목인 것이다. 여기에서 적극적인 어머니, 류화의 자리가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류화는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근대 어머니상을 구현하고 있는 인물인 것이다.

계몽기 ‘여성 교육의 필요성은 여성=어머니’라는 여성의 정체성에 있었다. 따라서 여성교육은 “장차의 어머니 교육”을 의미했다.¹³⁾ 《황성신문》

12) 위의 책, 92면.

13) 전미경, 『근대계몽기 가족론과 국민생산 프로젝트』, 소명출판, 2005, 157면.

의 한 논설에서도 여성을 교육하는 것이 큰 자본이라고 하고 있다.

女子之有教育은財産之大資本이오女子之無教育은財産之大耗賊이며女子之有教育은教育之大根本이오女子之無教育은教育之大讎敵이라호노니(중략)夫國必有民이오民必有家오家必有男女호야并圖其生活整理而男子之義務는多在於國家社會호고女子之義務는多在於家族社會호야相爲表裏호디欲盡其義務則必要有知識이오欲廣其知識則必要有教育이니此實男女之必要教育之原因也로다¹⁴⁾

그러나 남자의 의무는 국가사회에 있다면 여성의 의무는 가족사회에 있다고 보면서 가부장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게 받더라도 남자는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에, 여자는 여전히 가정이라는 사적인 자리에서 놓여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 교육의 의미를 여성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민족-국가 담론으로 귀결시키는 것이었다.’¹⁵⁾ 이들의 교육은 근대 질서에 충실할 수 있는 나라의 후생, 국민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당시 ‘여성의 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처럼 여성이 인구 재생산의 직접적 주체라는 점 때문이다. 여성은 그들을 낳고 기를 미래의 국민 구성원들의 어머니라는 지위로 호명된 것이다.’¹⁶⁾ 이들은 자식을 국가적 소영웅, 국민들로 길러냄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남성과 동등한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¹⁷⁾

14) 尹孝○氏, <女子教育之必要>, 《황성신문(1906. 5. 22~23.)》 영인본13, 75면.

15)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담론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7, 108면.

16)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민족·섹슈얼리티·병리학-』, 책세상, 2001, 106면.

17) 유길준도 여성 교육이 가정을 잘 돌보는 데에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모든 일을 여자가 대신해야하므로 여성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孩嬰의 十歲前은 其養育호는 責이 全히 其母에게 在호고 十歲後는 其教育호는 道가 全히 其父에게 存호디 十歲前이 十歲後에 比호야 尤難호지라.’ ‘治家호는 道와

<류화전>의 부제목은 ‘고구려 건국의 랍사와 시조 주몽의 위대한 사업’이다. ‘고구려 건국 랍사(略史)’란 곧 류화가 해모수를 만난 후, 온갖 고난 끝에 주몽이 탄생하는 데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후, ‘주몽의 위대한 사업’은 그려지지 않은 채 미완으로 끝나지만 제목이 <류화전>임을 미루어 볼 때, 이후에도 아들을 위한 어머니 류화의 희생과 고난의 삶이 이어질 것임이 짐작된다. 이는 작품 창작 의도가 주몽의 위대한 업적을 그려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웅적인 인물이 민족 대주체인 고구려를 건국하기까지,¹⁸⁾ 뒤에서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신성하고 강인한 어머니상을 부각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류화의 탈성화는 그녀를 성모(聖母)의 모습으로 구현하는 데서 한층 심화된다. ‘류화 성모 탄생 추모 성제하고, 류화 성모가 별원에서 성제를 탄생하고’¹⁹⁾ 등, 비록 한 여자로서는 부덕(不德)하다는 불명예를 짊어진 류화이지만 어머니로서는 성모와 같이 성스러운 인물로 현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왕과 사통한 죄로 부모에게까지 버림을 받았던 그녀의 삶은 아들 주몽에 의해 새롭게, 위대한 성모의 이미지로 갱생되는 것이다. 그녀는 구국의 영웅들과 같은 초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국가가 요구하는 여성의 덕목을 얼마나 성실히 실천해 나갔느냐, 즉 영웅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느냐에 따라서 성모적인 영웅상이 얻어지는 것이다.

徒賓호는 禮에도 不學호는 女子는 生疎호는 弊와 未鍊호는 事가 多호는 外에 萬苦 國家의 不幸호는 時를 當호는 男子는 戰地에 赴호는 者가 多호는 其一切事務는 女子가 代執호는 則 不教호는 能호는 故로 女子를 教호는 要緊호는 而 平時라도 女子가 學識이 有호는 力役의 勞를 不須호는 能호는 事가 多호는 (중략) 女子를 不教호는 國은 其人民의 口가 千萬에 至호는 實狀은 五百萬의 數에 不過호는 尤길준, 『서유견문』, 박이정, 2000, 334면, 428면.

18) 신체호는 고구려를 단군과 부여를 계승하고 있으며, 발해와 백제의 역사를 태동시켰다고 본다. 따라서 고구려는 <을지문덕전>을 시작으로 작품 곳곳에서 민족의 근원으로 지속적으로 환기된다.

19) <류화전>, 앞의 책, 102면, 114면.

성모적이며 군자 같은 류화의 이미지는 이에 위반되는 여성들로 인해 더욱 부각된다. 신화에서 대소와 주몽이 대립 구도를 이루었던 것과 달리 <류화전>에서는 류화와, 시기와 질투를 일삼는 후궁들과 대립 구도를 이룬다. 한낱 여자의 성정(性情)으로 질투에 눈이 먼 우, 금 후궁들은 국가의 흥망을 결단낼 위험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우 금 량씨 비록 류화를 해할 마음이 빠까지 사무치나 왕상이나 소후에게 직접 류화에 대한 시비를 알릴 수 없음을 깨닫고 이에 금백을 훔어 친신한 중신을 꺾으며 궁중에 출입하는 궁인 월향을 친절히 퇴물로 사귀어 류화 모자의 생명을 앗고자 하니 자고 이래로 왕가의 중첩 간의 질투와 시기로 말미암아 국가의 흥망 성쇠에 관계가 절대한 것이다. (중략) 이 또한 여자의 상정이니 무엇을 탓하라²⁰⁾

류화는 이러한 후궁들의 모함과 질투에도 의연함을 잃지 않는, ‘자색이 절대한 중에 후덕이 태사(太妃)’²¹⁾ 같은 인물로 묘사된다. 을지문덕 등이 봉건질서에 대한 비판과 대외투쟁을 통해 구국의 영웅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다면 류화는 여자들의 성정(性情)이 대립적으로 그려지면서 어머니로서의 인품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딸인 류화가 어머니로서 획득하는 이러한 성모적인 이미지는 여성들의 국민으로서의 영웅화되기 모델이 된다. 아들 주몽을 영웅으로 창출하는 어머니로서의 위치, 류화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는 국난의 상황에서 남성과 함께 동등하게 함께할 여성의 국민화 기획이 무엇이었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신채호가 주목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 사회가 어떻게 질서 지워져 가는가 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인간에 의해 재구성되는 근대국민국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²²⁾ 이런 점

20) 위의 책, 121~124면.

21) 위의 책, 102면.

에서 <류화전>은 신화의 자리가 아닌, 근대의 자리에 있는 소설이다.

신채호가 이렇게 근대를 이야기하고자 하면서도 신화를 차용한 데는 첫째, 대중성과 독자에 대한 고려와 관계가 있다. ‘근대에 재발견된 영웅은 민족의 서사와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 어느 민족이든 영웅을 갖고 있으며, 영웅을 갖지 못한 민족은 역사에서 소멸했다. 그것은 유독 그 민족에게 뛰어난 인물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이 공동의 기억을 간직하는 데 실패했음을 뜻’²³⁾하는 것이다. 신화와 백악도인의 등장과 같은 고전소설적인 요소의 첨가는 독자들이 익숙하게 독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었다. 이를 통해 여성 영웅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한편 이러한 신화의 차용은 ‘신화의 역사화’²⁴⁾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잔다르크와 같은 역사적인 여성 영웅이 없는 상황에서 신채호가 선택한 것이 여성이 등장하는 신화를 역사화하는 방법이었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주몽신화를 가공하여 인간의 역사로 전유하는 방법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묶어주는 상상의 원천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신화의 차용은 대중성과 역사성을 확보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서사 전략이었던 것이다.

22) 신채호는 <류화전> 외에도 여러 작품에서 신화를 차용하고 있지만, 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그리지는 않는다.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자기 발견, 고뇌에 초점을 두고 있다.

23) 강옥초, 『영웅 - 낡은 용어, 새로운 접근-』, 박지향 외, 『영웅 만들기』, 휴머니스트, 2005, 23면.

24) 서영채, 『기원의 신화를 향해 가는 길』, 서울시립대 인문과학연구소, 『한국 근대문화와 민족-국가담론』, 소명출판, 2005, 124면.

3. 효자(孝子)의 재발견 〈익모초〉

〈익모초〉는 한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는 신채호가 발표지 《가뎡잡지》를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으로 보인다.²⁵⁾ 〈익모초〉는 같은 해 발표된 〈을지문덕전〉, 〈이순신전〉과는 그 기법과 인물 형상에서 차이가 있다. 역사전기소설이 논평 형식으로 쓰여 있어 소설적 양식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반면에 시기적으로 먼저 발표됐던 〈익모초〉는 오히려 근대소설의 서사체에 가깝게 쓰여 있다.

〈익모초〉는 유교적 봉건사회가 요구하던 ‘효자상’이 근대기획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김장하는 효자 정문을 사액(賜額) 받은 김상원의 자손이다. 집안이 대대로 효성이 지극하고 ‘가정지학(家庭之學)’이 있어 김장하의 아들 셋도 효성이 남달랐다. 어느 날, 익모초를 한 대공 꺾어 든 웬 떠꺼머리총각 하나가 허락도 없이 김장하의 집에 들어온다.

허허, 세상에 왜 살면 별일을 다 보는 것이로고
 완만하다 완만하다 혼들 저러케 완만하 오히 년석이 어디 있나.....
 지각이 못나 그러헿가. 이십이나 되어 보이는데
 숙뵁이라 그러헿가. 얼굴이 과히 숙뵁스럽지 안이헌데.....
 삼척이 암만 두피라 혼들 어디 그런 놈이 잇던고.....(중략)
 아가리가 함부로 썬은 창군녀인지 말이 아모 버르장이 업서 펼 펼 나온다.
 여보 이 낭반 나 먹었으면 덕 나 먹었지 내 상관이 무엇이오?
 여보 나도 나쌀이나 먹었소.
 내가 오히라고 그러케 만만헿여 보이오.
 여보 나도 사십 년만 지나면 쉰여덜이오.
 이러케 함부로 말이 나오니 당장 광경을 보면 김씨는 로인이오, 그 총각
 은 이십이 못된 오히디 김씨의 공손흙은 도로혀 오히가 로인 디접헿는 것

25) 신채호는 가정교육과 여성 계몽을 위해 발간된 《가뎡잡지》에서 사원과 주필로 참여한 바 있다. 『전집 9권』 참조.

꺃고 총각으희의 완만함은 도로혀 로인이 으희들과 슈작함과 꺃흐며, 또 그 총각으희가 쥬인의 자리에 업연이 올라 안꺃고, 김씨는 손꺃티 운목예가 안 꺃더라.²⁶⁾

최완길이라는 이 띃꺼머리 총각은 스물도 못된 아이다. ‘가정지학’을 대 대로 이어가며 ‘예(禮)’를 실천하는 김장하의 집안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배움이 없어 윗사람에 대한 예의와 공경을 모르는 자이다. 김장하는 버르 장머리 없는 총각의 행실에 어이없어하지만, 곧 그에게 부모와 자식 간의 기본적인 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이에 최완길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 리면서 부모에게 효를 하지 못한 일은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죄라고 말한 다. 무지했던 청년이 가르침을 통해 ‘효’라는 인간적 도리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나 서사는 유교적인 봉건질서 ‘효’를 강조하고자 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애국심 없는 청국인 얘기를 통해 계몽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로 나 간다.

청국 문종황데 씨에 범국 군스가 원명원을 불사르고 청인을 다수히 사로잡 어다가 역사를 식이는데, 오라 흐면 오고, 가라 흐면 가고, 씨리면 맛고, 꾸지 즈면 밧는지라. 범국 사람이 씨흐되, 세계에 노예성 만은 자는 청국 사람 갖흔 자가 업스며, 세계에 부러먹기 쉬운 차도 청국인 갖흔 자가 업다 흐엿더니, 흐로는 범국 사람이 청국인을 디흐야 너의 부모가 소와 말 꺃다고 욱을 흐즉, 청국 사람들이 일제히 역스흐던 독기를 덜고 일어나 싸호코자 흐거늘, 범국 사람이 그 모양을 보고 탄식흐여 왈, 니가 청국인은 준준흔 동물과 꺃치 인국 심이 업는 자인 줄 아라씨니, 이제 이것을 본즉 청국인이 엿지 인국심이 업스 리오. 다만 가족 사랑흐는 마암에 나라 사랑이 씨씬 바가 됨이로다 흐엿도다.

슬푸다. 청국인이 인국심 업슴이 아니라 가족싱각에 나라 사랑흐는 마암을 이꺃고, 최완길이 부모 사랑흐는 마암이 업슴이 아니라, 가라치지 아니흔 고 로 부모 사랑흐는 방법을 모름이로다.²⁷⁾

26) <익모초>, 『전집 7권』, 729면.

법국이 황제의 이궁(離宮)인 원명원(圓明園)을 불사르고, 강제 노역을 시켜도 저항하지 않던 청국인들이 자신들의 부모를 욕하자 싸우려고 했다는 것이다. 신채호는 이들이 애국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가족 사랑하는 마음에 빼앗겼기 때문이라며 탄식하고 있다. 최완길이 부모 자식 간 도리를 모르는 것을 청국인들이 가족 사랑에 갇혀 애국심을 모르는 것에 비추면서 이들이 모두 완고한 이유는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최완길이 김장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식의 도리를 깨닫듯이 애국심 역시 가르침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신채호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신분이 낮은 설움 때문에 아들 공부를 시켰지만 지금은 나라를 생각해서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²⁸⁾ 또한 정신이 여전히 봉건시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완고하다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문명교육을 통해 신시대 인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²⁹⁾ 이는 곧 문명 교육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봉건 백성들을 국민으로 거듭나도록 지도, 계몽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소임과 책임을 역설하는 것이다. 즉 최완길처럼 몽매한 백성들을 가르침을 통해 가족 사랑하는 사람, 애국심이 충만한 사람으로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 계몽지식인의 자기 확신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신채호가 이처럼 가정을 배경으로 계몽 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데는

27) 위의 책, 730면.

28) '리성원 평성 욕심이 량반됨에 매쳤으니 구혹도다 만은 일심 정력을 들여 괴어히 그 아들 공부를 독실히 식히여 설치를 하였으니 또한 굳세도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 시디와 달나 총리대신을 흘지라도 남의 나라에 평민보다 귀홀 것이 업스니 아들 두고 공부식히는 동포들은 집 지체 이악이는 고만 두시고 나라 디체 생각 호심을 바라노라.' <슈원리성원>, 『전집 6권』, 492면.

29) '지금에 었던사람들은 완고한사람을보면 열이나서 니를갈고 그 완고함을 띄워호느니 이런사람들은 결단코 올타고홀수업는자-로다 (중략) 문명의교육을 확장하여 신시디의 인물을 작성함이 가호니라.' <완고한 자를 교도홀 일>, 위의 책, 120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는 진화론을 단초로 인류가 몸을 위하는 시대(야만) → 집을 위하는 시대 → 집과 나라를 위하는 시대 → 나라를 위하는 시대(문명)로 진보한다고 보면서 민족은 국가의 운명과 함께함을 역설하였다.³⁰⁾ <을지문덕전>에서도 ‘나라를 스랑흐디 집과갓치흐라 나라의 형세가 이러케 날마다 결단이 나는 거슨 사름마다 집을스랑흐고 나라를 스랑치 아니흐는 연고-나라³¹⁾며 집보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는 곧 역사적 진보, 문명의 최고 지향점이었던 것이다.

‘국가가 완전한 성숙체이고 가족이 미성숙한 존재라는 것은 곧 가족은 아이이고, 국가는 어른이라는 것을 뜻한다. 어린아이는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감시와 규율을 통한 엄격한 훈육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가족은 국가라는 위계 질서 안에 포섭되면서 국가를 구성하는 하나의 개별적 단위인 것이다.’³²⁾ 이러한 관계를 가정 안으로 축소해 보면 부모가 곧 국가가 된다. 당시, 국가는 곧 부모라는 이러한 함의는 신문지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기되었다.³³⁾

국가는 곧 혼집 족속을 크게 말흐바 ‘시조 단군이 태백산에서 탄성흐샤 이나라를 기창흐샤 후세 즈손에게 찿쳐 주시니 삼처리 강토는 곳 그집산입이 오 스천년 력스는 곳 그 집 족보-며 력디 태양은 곳 그집 종통이오 디경을 둘러잇는 산하는 곳 그집 울타리라 오직 이 이천만 자손이 여기셔 나셔 여기셔 자라고 여기셔 흠피 살고 여기셔 흠피 의지식지흐고 여기셔 즐기고 슬허흠을 흠피흐느니 집과 나라이 무엇이 다르리오³⁴⁾

國은人民의社會를組織호야生命財產을付托호一大家屋이라家屋이有호

30) <몸과 집과 나라 세가지 경황의 변천>, 위의 책, 354~356면.

31) <최도통전>, 『전집 4권』, 321면.

32) 전미경, 앞의 책, 17~18면, 21면.

33) ‘두려마라부모국아(중략) 걱정마라사랑호는조국아’ 열각성, <덕국의 국민가>, 《대한매일신보(1909. 5. 20.)》 국문 영인본3, 2179면.

34) <국가는 곳 혼집 족속이라>, 『전집 6권』, 279면.

면生活 ㅎ고家屋이無 ㅎ면敗亡 ㅎ줄은愚婦痴男이라도洞然皆知 ㅎ지니國을愛
 ㅎ는心이一個時間이라도忙忽치못할것이라³⁵⁾

국가는 곧 하나의 큰 집과 같은 것이다.³⁶⁾ 봉건 시대 집안에 대한 애착은 국가에 대한 사랑에 적용된다. 국가의 멸망은 가문의 멸망, 부모의 죽음으로 연결되며³⁷⁾ 국가의 연속성은 가문의 연속성으로 인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의 도리를 아는 것은 곧 애국심이 충만한 국민 탄생으로 이어진다. 국가를 지키는 것은 곧 부모에게 효도하는 바와 동일시됨으로써 국가에 대한 충성은 당위성을 부여받는다.³⁸⁾ 진화의 당위성 안에 개인은 가족 안에 가족은 국가 단위에 포섭됨으로써 애국하는 국민 창출이 기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청국의 예를 통해 애국심을 모르는 것을 ‘준준훈(‘어리석고 미련한’ -인용자-) 동물’과 같은 야만적인 인간으로 치부하며, 가족 생각보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임을 역설하는 데서 강화된다. 이는 우리도 청국처럼 애국심을 모르면 야만적이고 미개한 취급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주의를 비문명국으로 전락한 청국의 이미지에 투영함으로써 국가 사랑하는 마음을 문명, 진보의 이미지로 고양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족이 미신의 원천이라면 국가는 문명 및 계몽’의 상징이었다.³⁹⁾ ‘근대계몽기에 이르러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국가 곧 새로운 국민을

35) <愛國心>, 《만세보(1906. 7. 26~27.)》 영인본 상, 98면.

36) <나라는 곳 일개큰집>, 《대한매일신보(1909. 5. 13.)》 국문 영인본3, 2155면.

37) ‘국가리의 된다며는 아니흔 것 별노업시 밤낮으로 익쓰다가 경륜디로 못다호고 황금 산에 비가되여 부모국을 영결홀제’ <시스평론>, 《대한매일신보(1910. 4. 20.)》 국문 영인본4, 3236면.

38) ‘두려마라부모국아 원슈들이만호니 담력잇고용땡잇는 혈성대의청년들 부모국을직 희라고 굿게파슈섯고나’ <혈성디>, 《대한매일신보(1909. 8. 11.)》 국문 영인본3, 2459면.

요구하고 있었고, 가정은 이러한 국민을 길러내기 위한 장이 되어야 했다.’ ‘문명한 가정의 수립은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첫걸음’⁴⁰⁾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범위는 적은 가족을 유신케함에 함당홀지라도 교육의 정신은 큰 가족 곧 국가를 유신케함’⁴¹⁾에 두는 것이었다. 신채호가 봉건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효’를 강조하고, 가정지학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봉건 지배 질서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효’라는 윤리 규범을 문명의 상징인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전이시켜 근대적 국민의 새로운 윤리 규범, 애국심을 강화하기 위한 소설적 장치였던 것이다.

김장하와 그의 아들들이 가정에서 효도를 다하는 것, 그리고 최완길이 배움을 통해 ‘효’를 알아가는 것은 곧 나라에 대한 충성으로 전이되며, 그의 조상 김상원의 효자정문은 앞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 봉사하는 열사의 표상이 될 작업이 되고 있다. 유교적 봉건 질서 하에서 모범적 인간상이었던 ‘효자’는 최완길처럼 국가를 부모로 섬기는 새로운 ‘효자’로 재탄생되는 것이다. 나라가 곧 한 집안, 부모가 되는 것은 근대국민국가 기획의 단초이다. 한 가정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계몽의 필요성이 역사전기소설에서 구국의 영웅을 통한 근대국민국가의 기획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가정지학’은 곧 ‘적은 가족의 스상을 버리고 큰 가족 국가의 스상’⁴²⁾인 ‘국가지학’이었던 것이다.

39) 앙드레 슈미트, 『제국 그 사이의 한국』, 정여울 역, 휴머니스트, 2007, 125면.

40) 전미경, 앞의 책, 80~81면.

41) <가족 교육의 전도>, 『전집 6권』, 266면.

42) <가족 스상을 타파함>, 위의 책, 290면.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신채호 소설 <류화전>과 <익모초>를 대상으로 근대기획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신채호가 역사전기소설의 영웅 형상화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효자상 등의 다양한 인물 창출을 통해 근대 기획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류화전>에서는 류화를 통해 군자와 같은 성모적인 어머니상을 구현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지아버에게 버림받았던 류화는 고난을 이겨내는 강인한 어머니로 갱생되면서 국민으로서의 위치와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사람의 딸인 류화가 어머니로서 획득하는 성모적인 이미지는 여성들의 국민으로서의 영웅화되기 모델이 된다. 그녀는 구국의 영웅들과 같은 초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영웅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느냐에 따라서 성모적인 영웅상이 얻어지고 있었다.

<익모초>에서는 유교적 봉건사회가 요구하던 ‘효자상’이 근대기획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서사에서는 봉건 시대 집안에 대한 애착이 국가에 대한 사랑에 적용되고 있었다. 국가를 지키는 것은 곧 부모에게 효도하는 바와 동일시됨으로써 국가에 대한 충성은 당위성을 부여받는다. 국가의 멸망은 가문의 멸망, 부모의 죽음으로 연결되며 국가의 연속성은 가문의 연속성으로 인지된다. 따라서 가정의 도리를 이는 것은 곧 애국심이 충만한 국민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가정지학’은 ‘효’라는 윤리규범을 문명의 상징인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전이시키기 위한 ‘국가지학’이었던 것이다.

본고는 역사전기소설 중심으로 단선적으로 진행되던 신채호의 근대기획 서사 범위를 넓혀, 근대기획을 위한 신채호의 다양한 소설적 시도를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를 둔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단체 신채호전집 편찬위원회, 『단체신채호전집』 제1권~10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대한매일신보》 국문 영인본1~4권, 코리아헤럴드, 1984.

독립신문영인간행회, 《독립신문》 영인본1~5권, 갑을출판사, 1981.

한국문화간행회, 《황성신문》 영인본1~13권, 공산출판사, 1980.

_____, 《황성신문》 영인본14~21권, 경인문화사, 1981.

한국신문연구소, 《대한매일신보》 국한문 영인본1~6권, 경인문화사, 1977.

한국학문헌연구소, 《대한민보》 영인본 상·하, 아세아문화사, 1985.

_____, 《만세보》 영인본 상·하, 아세아문화사, 1985.

2. 논문

박중렬, 「한국 근대전환기소설의 근대성과 계몽담론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0.

송현호, 「애국계몽기의 문학개혁운동과 문학론 -신채호의 양계초 수용과 그 극복을 중심으로-」, 아주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제8집, 1997, 12.

신연재, 「동아시아 3국의 사회진화론 수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양진오, 「강요된 근대와 거대서사의 기원」, 『실천문학』 54 여름호, 1999.

이영신, 「단체 신채호의 문학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9, 75면.

채진홍, 「신채호 소설에 나타난 근대인관」, 한국언어문화회, 『한국언어문학』 제55집, 2005, 10.

최수정, 「신채호 서사문학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3, 90~96면.

최옥산, 「'신국민' 만들기와 문학 -신채호와 양계초의 국민성 탐구-」,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한국학 연구』 제13집, 2004.

최홍규, 「식민지시대의 민족주의와 민중의식 -특히 신채호의 사회와 역사의 주체인식을 중심으로-」, 수원대, 『수원대 문화』 제1집, 1985.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담론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7, 108면.

3. 단행본

- 강옥초, 『영웅 - 낡은 용어, 새로운 접근-』, 박지향 외, 『영웅 만들기』, 휴머니스트, 2005, 23면.
-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민족·섹슈얼리티·병리학-』, 책세상, 2001, 106면.
- 권혁범, 『국민으로부터의 탈퇴』, 삼인, 2004.
- 김병민, 『신체호 문학연구』, 아침, 1989.
- 김복순, 『1910년대 한국문학과 근대성』, 소명출판, 1999.
- 김학규 외, 『양계초의 문학사상』,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창작과 비평사, 1985.
-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
- 박노자, 『우승 열패의 신화』, 한겨레신문사, 2005.
- 서영채, 『기원의 신화를 향해 가는 길』, 서울시립대 인문과학연구소, 『한국 근대문학과 민족-국가담론』, 소명출판, 2005, 124면.
- 송민호, 『한국개화기소설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75.
- 송백현, 『한국근대역사소설연구』, 삼지원, 1985.
- 송현호, 『한국근대소설론 연구』, 국학자료원, 1980.
- 신용하, 『신체호의 사회사상연구』, 한길사, 1984.
- 신형기, 『민족이야기를 넘어서』, 삼인, 2003.
-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문학 연구』, 소명출판, 2005.
- 오선민, 『전쟁서사와 국민국가 프로젝트』, 『국민국가의 정치적 상상력』, 소명출판, 2003.
- 유길준, 『서유견문』, 박이정, 2000, 334면, 428면.
- 윤해동,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2004.
-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2005.
-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한국 여성 관계 자료집』하, 이화여대출판부, 1980.
- 임지현·이성시 엮음,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2004.
- 전미경, 『근대계몽기 가족론과 국민생산 프로젝트』, 소명출판, 2005, 17~18면, 21면, 80~81면, 157면.
- 차승기, 『근대 계몽기 민족주의의 성격에 관한 고찰 -저항과 지배의 변증법-』, 한국문학연구회, 『현역중진작가연구IV』, 국학자료원, 1999.

최원식,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_____, 『문학의 귀환』, 창작과 비평사, 2003.

하정일, 『탈식민의 미학』, 소명출판, 2008.

고자카이 도시야키, 『민족은 없다』, 방광석 역, 뿌리와 이파리, 2003.

니시카와 나가오, 『국민이라는 괴물』, 윤대석 역, 소명출판, 2002.

미셸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박정자 역, 동문선, 1998.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윤희숙 역, 나남출판, 2004.

앙드레 슈미드, 『제국 그 사이의 한국』, 정여울 역, 휴머니스트, 2007, 125면.

에르네스트 르낭, 『민족이란 무엇인가』, 신행선 역, 책세상, 2002.

에릭 홉스봄 외, 『만들어진 전통』, 박지향·장문석 역, 휴머니스트, 2004.

프라센지트 두아라,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문명기·손승희 역, 삼인, 2006.

히야마 히사오, 『동양적 근대의 창출』, 정선태 역, 소명출판, 2001.

Abstract

A Study on the Planning of Modern Nation-State in Shin Chaeho's
Novel

- Mainly on Ryuhwajeon and Ikmocho -

Kim, Hyun-Ju

Till now, many researches were done in various points on the planning of modern nation-state, on the historic biographic novels of Shin Chaeho. In this thesis, expanding the topic, it is studying on the points of various modern planning of Shin Chaeho, on Ryuhwajeon and Ikmocho which have never been treated in modern plannings.

In Ryuhwajeon, it is realizing the mother like Vierge. Ryuhwa is reborn as a strong mother who overcomes difficulties, as an assistant of King Dongmyeong, the male hero who represents the identity of the race. Here, the identity of Ryuhwa, as the mother, is identified. The figure of Ryuhwa, like a person of virtue, realizes the image of desexualized mother. Her academic ability gives previous notice that she would contribute to grow a hero who can make a good practice of ideology and morality which are required by the era, and it becomes a work which strengthens the duty of female as the mother and controls the female under the plan of the nation.

Ikmocho is the first novel of Shin Chaeho, but has never studied. In transcription, it shows the feature of re-birth of a filial son, from a person who was required by the Confucian feudal society, to a person filled with patriotic mind. Family members of Kim Jangha are heartily filial,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the family has family precepts. The figure named Choi Wangil, realizes the filial piety through the teaching of Kim Jangha. This filial piety transforms as patriotic piety. The piety to the nation becomes granted,

because protecting the nation is identified with the filial piety. In the natural theory of evolution, it expects the creation of patriotic people by connoting the family into the nation, and the individual into the family.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mentioning of the family precepts was a device to transform the filial piety, a moral standard, to patriotic piety, a symbol of cultivation, and it was to strengthening the national precepts.

Key-words : modern nation-state, mother, image of Vierge, Desexualization, re-birth of a filial son, family precepts, national precepts

김현주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 경북 영천시 야사동 청구아파트 105동 1802호

전화번호 : 010-8530-7556

전자우편 : badalove2001@hanmail.net

<p>이 논문은 2010년 10월 30일 투고되어 2010년 12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0년 12월 15일 게재 확정됨.</p>
